

# 롯데 돌풍·올림픽 '금' 온국민 야구로 신났다



## 2008 시즌 결산

&lt;4&gt; 13년만에 500만 관중 돌파



2008프로야구는 13년 만의 500만 관중 돌파로 풍성한 한 해를 보냈다.

흥행의 중심에는 '부산 갈매기'가 있었다. 2001~2004시즌 내리 팔찌를 했던 롯데는 사상 첫 외국인 감독 로이스터를 앞세워 시즌 내내 4강 진출을 멈추지 않았다.

8년만에 가을 잔치 꿈을 이룬 롯데는 성적과 흥행 사상에 모두 성공하면서 137만9천735명을 사직구장으로 불러들였다. 7위로 마감했던 지난해(75만9천51명)에 비해 관중수가 81.7% 증가했고, 사직구장(3만관중)에 21차례 만원 관중이 들어서면서 1995년 LG가 작성했던 시즌 최다 관중 기록(126만4천762명)도 깨어버렸다.

프로야구 역사상 500만 관중을 넘어 선 해는 1995

년이 유일하다. 당시 OB 베어스(현 두산)와 LG 트윈스의 한 지붕 1위싸움 속에 전국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와 해태 타이거즈(현 KIA)가 4강 멤버로 활약하면서 540만6천374명이 야구장을 찾았었다.

## 사직구장 137만명 입장 시즌 최다

지난 3월29일 대장정에 올랐던 2008 프로야구는 6월20일 300만 관중 돌파에 이어, 7월27일 400만 관중 기록을 넘어서었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의 열기를 몰아 막바지 흥행 몰이에 나서 9월26일 13년만에 500만 고지를 돌파했다.

총 관중은 525만6천332명, 지난해에 비해 28.1%의 관중이 증가 한 것으로 4강 싸움의 윤곽이 드러난

9월을 제외하고는 경기당 평균 9천명이 찾았다.

각 팀당 관중수는 SK 75만4천247명( 지난해 65만4천429명, +15.3%), 두산 92만9천600명( 78만6천54명, +18.3%), 삼성 38만7천231명( 33만6천936명, +14.9%), 한화 37만2천986명( 32만2천537명, +15.6%), KIA 36만7천794명( 20만7천232명, +77.5%), 히어로즈 25만8천777명( 13만4천595명, +91.8%).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한 LG만 지난해(90만1천172명)에 비해 10.5% 감소한 8만6천662명의 관중을 동원하는데 그쳤다.

500만 관중의 열기는 포스트 시즌에도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롯데와 삼성의 준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두산과 SK가 맞붙은 한국시리즈까지 모두 14차례의 경기에 34만9천359명이 다녀갔다.

한국시리즈가 5차전에서 끝나 포스트시즌 최다 관중 기록(1995년·39만9천788명) 달성을 실패했지만 준플레이오프 2차전을 제외한 13경기가 매진됐다.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한 경기 최고 수익인 5억565만6천원이 달성되는 등 총 53억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다.

## KIA 부진...광주팬들 막판 외면

KIA의 경우 올 시즌 관중이 77.5% 증가하기 했지만 이는 최하위로 흥행 참패를 했던 지난해와 비교한 수치라 민족스런 결과는 아니다. 게다가 무등경기장이 1만3천4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최다 1만1천명과 1만1천5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구장을 보유

한 한화, 삼성보다 관중수가 적었다. 4강 탈락 여파로 올림픽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도 아쉽다.

박병의 4강 싸움을 하던 9월5일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 3연패를 당한 뒤 관중수가 급감, 평균 6천287명이던 관중수가 평균 3천147명까지 떨어졌다.

여전한 경기장 시설도 악재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1965년 건립된 무등경기장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관중석 사이가 좁아 팬들을 쓰고 있다.

광주시가 몇 차례 야구장 건립을 공언(公言)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공언(空言)에 그칠 우려를 안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이대진 FA 자격 획득

## KBO '자유계약' 27명 공시



(이상 히어로즈), 최동수(LG)는 처음으로 FA 자격을 획득했고 김재현, 가득열(이상 SK), 박진만, 이상복(이상 삼성) 등은 2004년에 이어 다시 팀을 끝 기회를 얻었다. 정민철, 이도형, 이영우(이상 한화), 이종열, 최원호(LG) 등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히어로즈 전준호, 송지만, 김수경 등은 올해 FA를 선언할 수 있지만 지난해 소속팀이 현대에서 히어로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FA 계약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구제 케이스로 FA 자격을 받았다.



어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감독은 이날 KBO 기술위원회 결정 직후 "이미 2006년에 다시 WBC 감독직을 맡지는 않겠다고 말했는데 난데없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나야말로 봄도 그렇고, (감독직을 맡을 수가 없다)"라며 "WBC 감독은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2차례나 한 김성근 SK 와이번스 감독이 맡는 게 맞다"고도 했다. 김인식 감독은 2005년 1월 가벼운 뇌출증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김 감독은 WBC 감독직을 맡을 의사가 없다는 말인 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제야 전화를 받았는데 어떡하느냐"라면서 "맡고 안 맡고를 떠나 왜 (감독 선임 문제) 돌다 돌다 이렇게 온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 WBC 감독 또 뽑긴 했는데...

## KBO, 김인식 감독 결정



김 감독은 2006년 열린 제1회 WBC 대회 때 감독을 맡아 일본을 두 차례 꺾는 등 세계 4강 신화를 이루어하는 등 국내프로야구의 대표적인 지도자다. 하지만 기술위는 김인식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 수락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여서 최종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인식 감독은 "(감독 선임은) 뜻밖의 이야기"라면서 "하일성 KBO 사무총장을 만나 이런 결정이 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들

## 광주 서석초 우승

## KIA 타이거즈기 초등야구



트로피, 기념메달, 야구 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준우승을 차지한 화정초등학교와 3위 2개팀(군산 신풍초, 광주 대성초)에게도 트로피와 기념메달, 야구 용품이 수여됐다. 한편 대회 결승에서 완투승을 거둔 서석초 나홍운은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상 수상자

◆최우수 선수상 : 나홍운(서석초) ▲우수부

'올림픽 금' 사재혁  
亞클럽 역도 3관왕

2008 베이징올림픽 역도 남자 금메달리스트 사재혁(23·강원도청)이 2008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사재혁은 5일 경기 도 고양시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시니어대회 둘째 날 남자부 77kg급 경기에서 인상 156kg 용상 192kg을 들어 올려 합계 348kg으로 세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했던 이대영(29·경북개발공사)도 나란히 같은 체급에 나왔지만 인상 135kg 용상 160kg 합계 295kg으로 6위에 머물러 관심이 쏠렸던 사재혁과 이대영의 맞대결은 싱겁게 끝이 났다.

사재혁은 이 대회 우승으로 베이징올림픽과 지난달 전국체전에 이어 세 개 대회에서 연속 정상에 오르며 건재를 과시했다.

사재혁은 용상에서 2위인 리하이(175kg)보다 17kg이나 앞서 용상과 함께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하자 용상 3차 시도는 포기했다. 리하이는 합계 330kg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정재(27)는 인상 145kg 용상 170kg 합계 315kg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이 5일 경기 도 고양시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2008 고양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남자부 77kg급 용상 경기에서 192kg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 최다승(355승) 메덕스 은퇴



현역 메이저리그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인 그렉 메덕스

(LA 다저스)가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메덕스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는 메이저리그 단장회의 첫날인 5일(한국시간) 회의 장소인 캘리포니아주 한 리조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올해 42세인 메덕스는 프로 23년 동안 355승227패, 평균자책점 3.16을 기록 중이다.